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이태리 북부 몬짜 수도원 성당

† 오늘의 전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19-23 참조)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하여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명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된 것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손발인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독서 사도 2,1-11

제2독서 1코린 12,3㉔-7,12-13

복음 요한 20,19-23

입당송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최영배 비오 신부 | 들꽃마을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도 벌써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힘들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인재로 인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뉴얼이나 제도적 불충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절대적 불통 때문입니다. 자살, 이혼, 낙태, 암 발생률, 정신질환 발생률 등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최악의 현상들이 세계 1위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몸담고 있습니다. 관계는 소통이며 호흡인 동시에 생명이며 사랑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한 순간도 버틸 수 없으며 행복과 평화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며 평화요 행복입니다. 사람 또한 하느님과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각자는 독립된 고유한 인격체로서 우주만큼 소중한 존재이지만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공동체성을 절대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관계의 부족은 피의 탁함으로 이어지고 피의 탁함은 우리나라의 각종 부패와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행한 현실은 수직적 소통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소통, 성령께서 또 다시 하늘에서 세상 곳곳에 비처럼 내려오시는 이 수직 소통만이 관계의 부재를 소통의 원활함으로 바꾸어가는 진실된 에너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랑의 주체인 교회가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끊임없이 수직 소통을 함으로써 이 나라를 바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 모시는 성체의 힘을 모아 아래로 아래로 쉬지 말고 내려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예뻐서라기보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와 교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힘을 주시기 위한 교육적 차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하여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하고 큰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 시복 및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 특집 ②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 시복이 이루어지기까지

2014년 2월 8일 교황청 바티칸 뉴스는 교황 성하께서 한국천주교회가 요청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을 결정하는 교령을 발표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 103위 순교 성인은 1839년 기해박해 이후에 순교하신 분들로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 순교자들과 첫 번째 큰 박해인 신유박해(1801년)의 순교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시복시성을 위해 1997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순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각 교구에서 현양되던 분들을 포함하여 시복시성을 통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주교회의는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년간에 걸친 시복청원 준비를 마무리 한 뒤, 2009년 5월 20일 시복 조사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정식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이 서류를 검토하여 이번에 시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마침내 오는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직접 방한하시어 시복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황성하께서는 이번 시복식을 통해 그동안 뛰어난 덕행과 순교로 신자들의 존경을 받아온 ‘124위 하느님의 종’들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시복되는 순교자들은 대부분 신해박해(1791년)부터 병인박해(1866년)까지의 초기 신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해외선교사들이 본

격적으로 파견되기 전부터 가톨릭 신앙을 지킨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을 제외하면 한국 최초의 가톨릭 순교자로 기록된 윤지충 바오로(1759~1971년)를 비롯해 대부분이 평신도들입니다. 첫 대규모 박해로 기록된 신유박해(1801년) 순교자가 53위로 제일 많고, 기해박해(1839년)를 전후한 순교자가 37위, 병인박해 순교자 20위, 신유박해 이전 순교자가 14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지역의 순교자로는 김종한 안드레아를 포함한 20위가 시복되십니다. 관덕정에서 순교하신 17분과 복자성당에 모셔진 허인백 야고보, 이양등 베드로, 김종륜 루카 세분의 순교자들입니다.

30년 전 103위의 시성은 초기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견한 파리외방전교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주축이 되어 시복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보통 시복청원서를 접수하면 시복결정까지 10년이 걸리는데 이번 시복의 경우 공식접수 한 뒤 불과 5년 만에 승인된 것입니다.

비록 이번 시복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증거자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해 이벽 세례자요한과 132위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 및 증거자,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에 대한 시복시성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름**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분

최봉한 프란치스코(?-1815)의 순교이야기



최봉한 프란치스코
(?-1815)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강을 건너오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나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 분을 만난 적이 있는가? 모르긴 해도 죽을 때 까지 그런 분은 잊을 수 없으리라.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 순교자 최봉한 프란치스코를 생각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관장 앞에서 문초를 당하게 되거든 모든 것을 나에게 뒤집어씌우시오.” 경상도 청송 노래산에 포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최봉한 프란치스코가 교우들을 걱정하며 한 말이다. 그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형언할 수 없는 혹독한 형벌로 여러 차례 정신을 잃었지만 끝까지 겸손하고 깨끗한 자세를 지키다 감옥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충청도 홍주 다락골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신앙생활을 하였다. 공주 무성산으로 이주해 살다 부친이 사망하였을 무렵 모친과 누이와 함께 상경하여 주문모 신부를 찾아가 성사를 받았다. 그의 가족

은 정약종의 집에 살면서 황사영, 최필공 등과 가깝게 지내며 신앙의 깊이를 더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로 교회 지도자들을 잃게 되자 그는 천주교 서적들을 수습하였다. 그는 교회서적과 성물들을 가지고 경상도 깊은 산골로 들어가 그곳 교우들을 가르치며 지도자 역할을 하던 중 1815년 2월 부활대축일에 체포되었다. 그가 경주 관아로 교우들과 함께 끌려갔을 때, 그의 장모 구성열 바르바라가 모진 고문으로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면하며, 하느님을 위해 함께 목숨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녀에게 힘을 주었던지 그녀의 모든 유혹은 사라졌고 갖은 고문 속에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었다. 그 후 프란치스코와 함께 장인 장모도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그토록 바라던 순교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순교자 최봉한 프란치스코님! 저희도 당신처럼 가족과 이웃의 고통을 보면 술선수범하여 자신을 버릴 줄 알게 하소서. **김문**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절대 자유를 누린 남자

김익진(1906~1970)은 일제강점기에 만석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한 지식인이었던 젊은 김익진은 당시 인텔리 계층이 자주 그러했듯이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중국 공산 혁명에 가담하기도 했던 그가 마침내 발견한 진정한 혁명가는 모택동이 아닌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습니다. 1936년 하느님의 자녀가 된 김익진 프란치스코는 해방이 되자 토지 1만 3천 평을 광주지목구에 봉헌하고, 남은 농지는 소작인 100여 명에게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그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상을 잘 뒤 물려받은 땅으로 본의 아니게 지주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저는 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지주의 아들은 대구 남산동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순심중학교, 성의여자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일하며 교회에 봉사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김익진에게 세례를 준 고(故) 오기선 신부님은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마치 비상하는 봉황과 같이 만사를 해탈한 듯 절대한 자유를 누렸다.” **필문**



금주의 성인

6월 8일	성 막시미노(예수의 제자, 주교), 성 메다르도(주교, 누아용, 545년경) 성녀 멜라니아(과부, 410년), 성 윌리엄(주교, 요크, 1154년)
6월 9일	성 콜롬바(신부, 수도원장, 선교사, 이오나, 521~597년), 복녀 디아나(동정녀, 볼로냐, 1236년) 성 에프렘(부제, 교회학자, 성서학자, 에데사, 304~373년), 성 프리모(순교자, 로마, 297년경) 성녀 펠라지아(동정순교자, 안티오키아, 304년)
6월 10일	성 란데리코(주교, 파리, 660년경), 성 레스터투토(순교자, 1세기) 성 마우리노(수도원장, 순교자, 쾰른), 성 보구밀로(주교, 그네젠, 1182년) 성녀 올리바(동정순교자, 팔레르모, 9세기경), 성 이타마르(주교, 로체스터, 656년경)
6월 11일	성 바르나바(사도, 순교자, 1세기), 성 펠릭스(순교자, 296년) 성 파리시오(신부, 트레비소, 1267년), 성 포르투나토(순교자, 296년)
6월 12일	성 나보르(군인, 순교자, 1777~1895년), 성 레오 3세(교황, 816년) 성 바실리데(군인, 순교자, 3세기말), 성녀 안토니나(순교자, 304년) 성 오누프리오(은수자, 이집트, 400년경), 성 요한(수사, 신부, 사아군, 1479년)
6월 13일	성녀 아퀼리나(동정순교자, 시리아, 3세기말), 성녀 펠릭쿨라(동정순교자, 로마, 90년) 성 안토니오(신부, 교회학자, 설교자, 파도바, 1195~1231년)
6월 14일	성 디나(동정순교자, 853년), 성 루피노(순교자, 287년) 성 메토디오(주교, 콘스탄티노플, 847년), 성 발레리오(순교자, 287년)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6월 14일(토)은 (故) 박창수(요한) 몬시뇰 선종 5주기입니다.

■ 주교현장체험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9일(목) 청주교구 성모꽃마을에서 열린 주교현장체험에 참석하시어 암환자들을 간병하셨다.

■ 성유스티노 신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미사 및 전시관 개관 축복식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30일(금) 오전 10시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에서 성유스티노 신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시고, 성유스티노 100주년 전시관 개관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 정호승(프란치스코) 시인 초청 가톨릭 독서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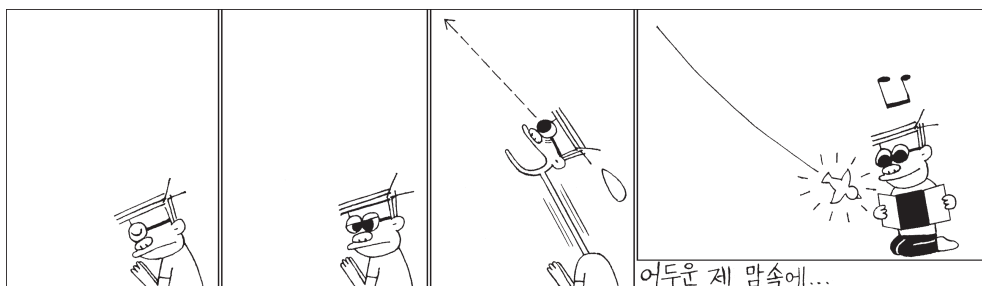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31일(토) 오후 8시 30분 월성성당에서 가톨릭 독서콘서트 “시인 예수를 생각하다”를 관람하셨다. 이날 행사는 가수 이동원씨의 공연에 이어 정호승(프란치스코) 시인과 함께 시를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서 오이소 성령님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9일(월) 11: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9일(월) 11:00 월성성당	경주지역 유아초중등교사들을 위한 미사	6월 9일(월) 19:00 성동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6월 9일(월) 20:00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포항지역 유아초중등교사들을 위한 미사	6월 11일(수) 19:00 장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6월 14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 모임)

일시: 6.15(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베네딕도 1차 성소 식별 피정

기간: 6.21(토)~22(일)

장소: 툇정포교베네딕도회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예수성심시녀회 성소 모임

일시: 6.22(일) 14:00~18:00

장소: 수녀원(앞산 카페거리)

대상: 주님 찾는 미혼 여성

피정: 개인상담 및 수시

신청: (010)2649-2045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1차: 7.11(금)~13(일)

322차: 7.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 ME, 983-0521

서울 삼성산 6월 2박 3일 대피정

기간: 6.13(금) 18:00~15(일) 15:00

문의: (010)3310-8826 / (02)874-6346

교육 | 모집

렉시오 디비나 성독 기도 모임

일시: 6.14(토) 10:00 / 1만 5천 원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피정의집

지도 신부: 허성준 가브리엘(OSB)

문의: (010)7558-5317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차정숙 레지나, (010)9510-6962

Show Bible : 모세

성경 속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기간: 6.18~7.16(매주 수) 19:00~21:00

장소: 바오로딸서원 / 청년: 2만 원

문의: 양체사리아 수녀, (010)2503-5185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음악1:1레슨(관현악, 성악, 피아노, 오르간 등), 교양, 문화강좌(공예, 요리, 사진) 전문가양성, 취업자격 과정 등
모집: 6.27(금) 까지 / 개강: 6.30(월)
장소: 감삼동 / 문의: 660-5556~7

스페인어 초급, 중급반 모집

개강: 7.7(월) 중급, 8(화) 초급

수강료: 10만 원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44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5(금)~8.15(금)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3(월)~8.1(금)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예약 가능

주관: 제주 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가)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의원
원장, 병리전문 의사 범어네거리 4번 출구 이봉구 (마티아) Tel. (053)755-7775 전 대구의료원 원장 www.ldkclinic.com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동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이전 확장**
DAEGU EYE CLINIC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당),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053)651-2233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웨딩사랑
www.weddingsarang.co.kr
대구 최대규모 365일 웨딩박람회
예약장, 웨딩드레스, 허니문 무료상담
웨딩준비 전문, 웨딩진설행 전문가기업
최창열 053)425-8216
마실리오 010-9687-0500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경 영(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함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과
시복식을 위한 특별 2차 헌금**
일시: 6.8(성령 강림 대축일)

행사 | 모임

6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5(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전국 연합 젊은이 성령축제

일시: 6.15(일) 9:30 / 미사 15: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강당
미사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주관: 한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

6월 가나 강좌

일시: 6.15(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교육 | 모집

15학년도 베드로관(小신학교) 자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생활, 학업
은 무학고등학교(경북하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레크레이션연수
일시: 6.9(월) 10:00~15: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회비: 1만원 (중식 제공)
문의: 노인사목담당, 250-3076

상반기 정의평화위원회 함께꿈울레특강
일시: 6.11(수) 19: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환경과 생명(공기-방사능)
강사: 함원신(방사능급식조례제정 경북대표)
문의: (010)5923-3163

23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야간)
기간: 6.12~7.10(매주 목, 5주간)
시간: 19:00~22:30 / 회비: 10만 원
장소: 매천성당
주관: 교구 가정담당
문의: 봉사자, (010)6499-3114

대구가톨릭 학술원 초청 특강
일시: 6.16(월) 17:00~18:00
장소: 교구청 내 꾸르실로 교육원
주제: 남북통일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강사: 배한동(요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6.21(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 5천 원
주제: 창조주 그리고 창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
강사: 정홍규(아우구스티노)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시편성가, 발생법 연수
일시: 7.13(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회비: 1만 원
문의: 255-4847

대구 가톨릭남성합창단 신단원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매주 토 19:00
장소: 가톨릭문화관 5층
자격: 음악을 사랑하는 가톨릭신자
참고: 성악전공 관계없음(오디션 필수)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초전성당 사무장 채용
마감: 6.30(월)
자격: 컴퓨터, 운전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054)932-8021

성모발현 성지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13일
출발일: 07월 29일(1차)
08월 05일(2차)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포털(유스티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새로운 100년
'다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육
함께하는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since 1999
성모아이의원
감기열입/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86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스피치 킴의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 & 발표력 & 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김민지(사바나)**

윤영희 성명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용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전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